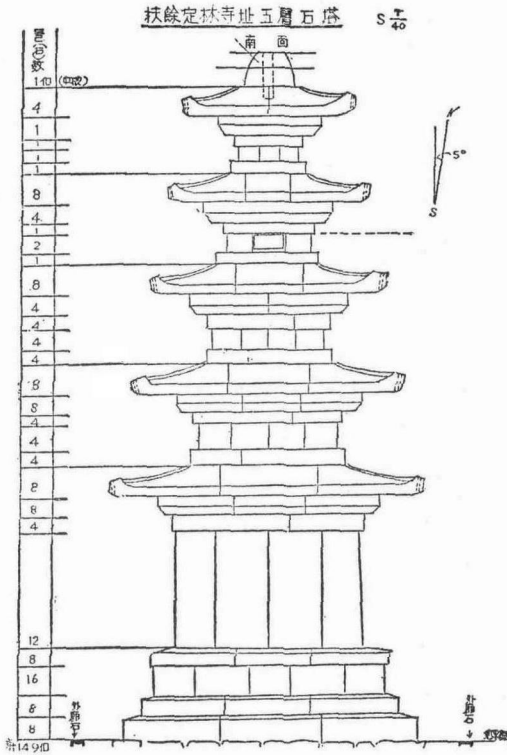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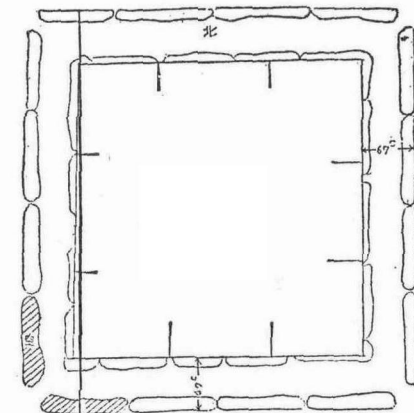


늑이 쓸어 검붉게 끼어있음을 볼적에 懷古의 느낌이 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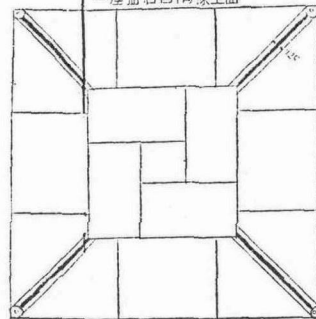
定林寺址五層石塔은 西紀 六六〇年 百濟가 나라이름을 잃었던 以前의 石塔으로 吊古의 情과 亡國의 恨을 한몸에 실은 百濟造塔의 手法과 技巧를 보여주는 石塔이다. 그늘 씩한 蓋石에 귀를 살짝 접어 올려서 輕快한 妙味를 낸 솜씨며 純厚淡淡한 形態에도 巍然한 氣風이 깃드린 이 石塔은 後人으로 하여금 當時藝術을 驚嘆케하는 것이다(一九六四、一、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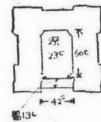
地台石과 外廓石 平面圖 S 1/40



一層蓋石四隅棟上面



舍利孔 平面圖 (四隅塔身)



威安 主吏寺 四獅石塔址의 調査

秦 弘 燮

威安 舊邑 威成中學校 入口에 四獅石塔이 있고 이 塔은 主吏寺址에서 移置한 것으로 主吏寺址 四獅石塔으로 呼稱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現在 이 塔을 構成하고 있는 部材는 四獅子, 屋蓋石, 四, 塔身, 二, 露盤, 寶珠, 各一이 남아 있다. 그런데 그 重層方法도 順序대로 되어 있지 않고 基壇部는 全無하다. 이것은 勿論 移置할 때의 不注意

로 인한 결과라고도 보여지지만 大正六年度 古蹟調査報告書에 掲載된 寫眞과 比較해도 順序가 달라졌다. 그렇다고 前記 報告書 掲載의 寫眞에 보이는 바도 原形은 아니다. 同報告書의 寫眞에서도 露盤은 倒置되고 四獅子를 屋蓋石위에 얹고 四獅子위에는 屋身이 얹혀있다. 이런 것을 보면 原塔址에 或 塔材가 殘存할 可能性도 있고 해서 塔址를 調査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主吏寺址는 咸安郡 餘航面 主西里 左村部落에 있어 西北으로 餘航山을 등지고 東南向한 傾斜地가 展開되었는데 여기가 主吏寺址로 推定되었다. 寺址에는 石燈, 臺石, 同蓋石 등이 논득에 묻혀있다. 塔址는 寺址東쪽 높직한 언덕에 자리잡고 있어 寺域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며 華嚴寺四獅子塔의 位置와도 一脈相通하는 點이 있다. 이 塔址에는 果然 屋蓋石 一, 屋身 一, 下基壇 面石으로 推測되는 石材三이 遺存하였다. 以上 露出되어 있는 塔材 以外에도 埋沒된 部材가 더 있을 可能性도 있었다.

이와같은 塔材를 좀더 자세히 考察하면 屋蓋石은 뒤집혀 있어서 落水面의 狀態를 잘 알 수 없으나 받침 四段이며 擔下는 直線이고 四隅의 轉角이 가법게 들러있는 新羅式의 形式을 보이고 있다. 받침 下段의 幅 七七cm, 轉角사이의 直線 距離 一一八cm였다.

塔身은 半以上이 세로 잘라져 없어졌는데 斷面에 정자리를 남기고 있다. 四隅에 隅柱가 있고 上面에 角形舍利孔이 있으나 表面에는 아무裝飾이 없다. 殘存部分에서 原形을 復原한 結果 一邊幅 六四cm, 高 六三cm 隅柱幅 上端 一一二cm, 下端 一三·五cm이며 舍利孔 上段一邊 一八cm, 底面 一邊 一五·五cm, 깊이 一三·二cm가 되었다.

基壇面石으로 보이는 三片의 石材는 大小不同으로 隅柱撐柱가 表出되었으나 이 三片만으로는 結構 原形을 復原할 수 없다. 大體로 높이 一四·五cm, 撐柱幅 二一·五cm의 것이다.

塔址에 殘存한 이와 같은 塔材以外的 遺物로는 石燈 臺石 三, 同蓋石 一, 塔材로 보여지는 石材 一이 있다. 石燈臺石은 모두 八角形인데 그 中 一은 磨損이甚하여 거의 原形을 維持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二點은

狀態가 좋아서 單瓣 八葉의 八角 伏蓮臺로서 年代의 差는 있으나 모두 羅代의 造成으로 보였다. 크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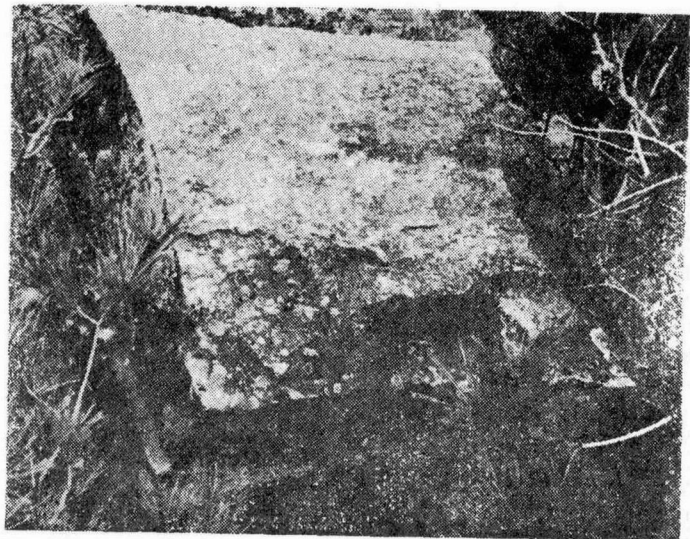
- 높이
- I 二三cm 竿石과 上段幅 四八cm
- II 二七cm 下臺一邊幅 二八cm
- III 四三cm

屋蓋石은 亦是 八角形인데 頂上의 圓孔周圍에 單瓣 蓮花 八葉을 周廻하였고 轉角이 들러있는 羅代作品이다. 높이는 二六cm 一邊幅 三〇cm이다.

또 하나의 石材는 現長 一一〇·五×四八·五cm인데 約 一八cm 들어가서 一段의 받침을 表現하였다. 石材는 一隅角을 남겼을 뿐 다른 部分은 정자리를 남기면서 破壞되어서 原來의 結構形式은 全然 알 수 없다. 이것이 四獅子塔의 下基壇 甲石의 一部가 아닌가도 推測해 보지만 現狀 態로서는 確言하기 어렵다.

以上 寺址에 殘存한 遺物을 보았는데 塔址에 殘存한 塔材를 移置된 塔과 綜合考察하여 보면 塔址의 屋身과 屋蓋石은 本塔의 第一層 塔身部로 推定된다. 實測數値에 있어서 大體로 近似值를 볼 수 있어 그렇게 推定되었으며 移置된 塔의 四獅子以上の 屋身과 屋蓋石은 자리만 바꾸어 놓는다면 第二層과 第三層의 塔身을 形成할 수 있어 塔身部는 復原이 可能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四獅子 위에 놓인 上基壇 甲石에 該當하는 塔材와 四獅子 下部의 卽 下基壇을 形成하는 塔材가 亡失 或은 破損된 채 塔址에 遺存한다. 또한 四獅子 中央에 있어야 할 佛像도 없어졌다. 以外에 注目되는 것은 四獅子 밑에 놓여있는 二個의 屋蓋石인데 이것은 그 形式 手法으로 보아 本塔과 거의 同時의 造成으로 보여지나 아마도 本塔과는 關係없는 것인 듯 하며 道路 건너 발가운데 高 四八·一cm, 幅 八四cm, 隅柱幅 左右 各 一六cm의 塔材가 있는 바 이와 或 關聯이 있는지 모르겠다.

以上과 같이 本塔은 稀貴한 例임에도 不拘하고 現在 狀態도 심망일뿐 아니라 塔址에도 部材가 남아 있음으로 이번 地上 調査보다 더 徹底한



調査를 거쳐 原來의 모습을 再現하여야 할 것이다.

本調査에 있어 咸安警察署 餘航支署 長 최광민氏、現地를 案内해 주신 古老徐用石氏等의 好意에 感謝한다.

法廣寺址와 釋迦佛舍利塔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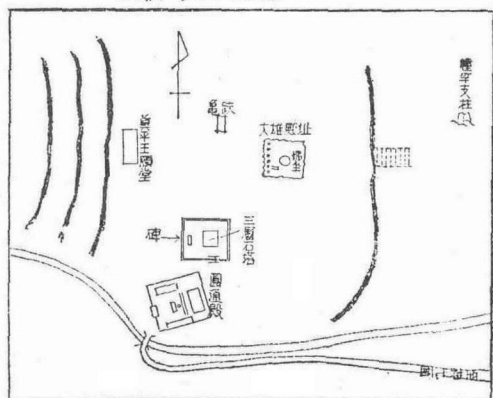
朴 日 蕪

慶北迎日郡神光面上邑洞에 所在한 法廣寺址는 飛鶴山東麓 傾斜地帶에 東海迎日쪽을 向하여 展開되었고 山谷에서 흐르는 溪谷의 北岸 參差한 平坦地帶에 따라 東向으로 新羅第二十六代 眞平王代에 創建된 古刹로 大伽藍이 配置되었으나 그 遺構는 廢墟되어 全寺域은 耕地로 變하고 많은

石造遺物은 散逸과 破損 또는 埋沒되었다.
大雄殿址

全寺域의 中心部에 位置하였고 自然石築壇으로 高臺를 이루워 方形으로 五間四至로 配列된 礎石만 一部露出되고 거의 埋沒되었다. 埧片이 出土되고 있으니 數博施設인 듯하다.

法廣寺址 略圖



佛座 本大雄殿址 中央에 巨大한 八瓣蓮臺가 二個一石으로 一部破損傷을 입었으나 上下 層段造出이 八稜線으로 大膽한 手法으로 되고 下部는 八稜灣曲 十六區에 眼象이 彫刻되었다. 高六五cm 伏蓮徑二・五五m 中石도 八角으로 各面隅柱를 造出하여 柱角도 八稜線의 手法으로 統一하였다. 高五五cm 面徑一・二三m 仰蓮臺도 伏蓮臺와 같은 手法으로 雄大한 蓮瓣이 있었을 것이나 周圍花瓣部分을 削減시켜 아무런 彫刻形體도 없는 半球形의 石塊만 남아 側近에 轉倒되어 있다. 이 臺座위에 安置되었던 石佛인 듯한 坐佛은 頭部와 兩膝이 破損된 채 胴體만 大雄殿址 西部築壇 옆에 있어 놓았다.

雙龜趺 一應

大雄殿址에서 西쪽 約四〇m 距離에 東向으로 位置하였으나 碑身과 龜首는 간곳 없고 兩頸部도 缺失되고 龜甲紋一部와 前足一部가 남아 있을 뿐 龜身도 甚한 破裂傷을 입었다. 背上面에는 碑身의 嵌入座가 남아 碑幅約八五cm 厚約一八cm임을 짐작할 수 있다. 龜身長約一・五〇cm 幅約二m.

幢竿 支柱

本寺址의 東쪽 約一〇〇m 地點 元來 本寺로 들어오는 於口에 位置